

고 할 수 있다.

지금 경주의 古老들이 침성대 있는 지역을 비두골이라 한다. 이 말이 어쩌면 옛부터의 진수를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글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아직은 假說에 불과하며 비약적이다. 그러나 하나의 시론으로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측면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여 두고자 하였다.

## 第24回 全國歷史學大會 科學史部會 1981. 6. 20

### 實學期の 曆算

漢陽大 數學科 金 容 雲

東洋科學 중에서도 특히 數學과 天文曆法の 관계가 긴밀함은 상식이다. 韓國은 中國曆을 계속 사용해 왔으므로 그 消化의 과정이 韓國人의 數學書에 反映되었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 觀點에서 本論文은 曆法을 매개로 하여 나타나는 數學과 曆算의 관계를 李朝, 특히 實學期를 중심으로 考察하였다. 그 內容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李朝의 표준적인 算書였던 五曹算經, 詳明算法, 算學啓蒙, 楊輝算法 등에는 曆算에 관한 問題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楊輝算法에 3문제가 실려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楊輝算法 중의 그것들 역시 曆算의 문제라기보다 28宿·干支 등과 관련이 있는 극히 상식적인 天體運動에 관한 것이어서 曆算이라기보다 數學의 應用으로 引用된 例題로 보아야 할 정도의 것이다.

그러나 李朝中期 이후의 韓國人이 엮은 算書에서 曆算의 문제가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사실과 관련하여 本論文은 洪正夏(1684-?)의 九一集, 洪大容(1731-1783)의 籌解需用, 南秉吉(1820-1869)의 算學正義 등을 중심으로 數學書 중의 曆算의 內容을 檢討하였다.

九一集에는 17개의 天文曆算의 문제가 실렸으며, 그 內容은 주로 置閏法, 歲差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曆法이란 中國古代의 四分曆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天文觀 역시 周髀算經의 그것을 그대로 踏襲하였고, 이 數學書가 저술된 당시에 施行되었던 曆法의 內容과는 거리가 먼, 극히 古典的인 立場을 취하고 있다.

籌解需用에는 天文·曆算關係의 문제가 20개 수록되어 있다. 曆算에 관해서는 九一集의 경우와 거의 같지만, 이 著者が 실제로 제작한 것으로 추측되는 天文儀器를 놓고 셈한 것으로 생각되는 儀器에 관한 數理的인 內容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또 度量衡의 章에서는 古典的인 律曆思想을 탈피한 近代的인 概念을 바탕으로 한 점이 주목을 끈다.

算學正義에 실린 曆算 關係의 문제는 6개에 지나지 않지만, 曆元計算에 필수인 大衍算, 不定方程式의 문제가 처음으로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特記할 만하다.

結論의으로 말해, 數學을 天文曆法과 독립시킨 李朝의 算學制度였지만, 後期에 갈수록 數學이 曆法에 접근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實學後期에는 數學者들이 曆法을 독자적으로 편찬하려 하였던 意圖를 역력히 엿볼 수 있다. 本研究를 통해, 비록 曆算이 본격적인 研究對象 내지 專門化되지는 않았으나, 算學者의 曆法研究는 적어도 啓蒙的인 意義만은 충분히 지녔음을 볼 수 있다.

### 原始的 疾病觀의 象徵性

— 주로 「三國遺事」와 「三國史記」를 中心으로 —

서울大 醫大 李 符 永

原始種族이라고 해서 外傷, 刺傷, 骨折 같은 物理的原因에 의한 것까지 모두 鬼靈의 탓으로 들린 것이 아니라는 點은 Ackerknecht도指摘한 사실이지만 古代民族이라고 해서 모두 原始的 鬼靈觀念에 立脚한 疾病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님은 勿論이다. 일찍부터 人間을 大宇宙를 본 뜬 小宇宙로 보고 小宇宙인 人間에게 일어나는 變化와 異常은 大宇宙의 變化와 不可